

- 다음에 오는 말하기 대본을 읽어 보고 카카오톡 음성 메시지로 보내세요. (카톡아이디: havenewdream)

가는 곳 묻고 답하기

1-02 이야기해 봐요



진태

소희

소희: 조진태 선생님, 안녕하세요?

진태: 어대! 안녕하세요? 오랜만이에요.

소희: 이 동네는 무슨 일이에요?

→ 이예요(x)

진태: 저는 이 동네 살아요. 출근하는 길이에요.

선생님은 여기 웬일이세요? 어디 가세요?

소희: 저는 병원에 가는 길이에요.

진태: 병원에는 왜 가세요? 어디 편찮으세요?

소희: 아니예요. 정기검진 받으러 가요.

→ 아니예요(x)

진태: 그래요. 잘 다녀 오세요. 오랜만에 만나서
반가웠어요.

→ 오랫만에(x)

소희: 저도요. 안녕히 가세요.

새 어휘/표현

* 오랜만, 출근, 웬일, ~ㄴ 길이에요, 편찮다(아프다), 정기검진,

가는 곳 묻고 답하기

1-02 이야기해 봐요(활용)

소희: 정태야, 안녕?

정태: 어대! 안녕? 오랜만이야.

소희: 이 동네는 무슨 일이니?

정태: 어, 나 이 동네 살아. 도서관에 가는 길이야.

너는 여기 웬일이야? 어디 가니?

소희: 나는 보스톤 심포니 홀 가는 길이야.

정태: 거기는 왜 가? 콘서트 보러 가는 거야?

소희: 응, 오빠가 12학년인데 졸업 콘서트를 해서 보러
가는 길이야.

정태: 그래. 조심해서 가고, 오빠한테 축하한다고
전해 줘.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어.

소희: 그래. 나도 반가웠어. 연락하고 한 번 만나자.

새 어휘/표현

- * 졸업
- * ~고 전해 주세요(줘)
- * 연락하다

‘르’ 불규칙 활용: 어간의 끝소리 ‘으’가 ‘아/어’ 또는 ‘았/었’을 만나면 ‘으’가 없어지고 ‘르’이 생긴다.

단어	-고	A -ㄴ/은 데 V-는데	A/V- (으)니까	A-아/어서	V-았/었어요
고르다					
누르다					
모르다					
부르다					
서두르다					
오르다					
흐르다					
다르다					
빠르다					

- 나는 스페인 음식을 잘 () 네가 메뉴 좀 () 줘. (모르다, 고르다)
- 위층에서 누나가 급하게 () 깜짝 놀라 계단을 ()() 갔어요.
(부르다, 서두르다, 오르다)
- 저는 한국어가 재미있어서 배우는 속도가 아주 (). (빠르다, 존대말로)
- 기려와 기채는 서로 생김새와 성격이 많이 () 아무도 쌍둥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.
(다르다)
- 갑자기 눈물이 ()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. (흐르다)
- 통증 부위를 짹 () 주세요. (누르다)

~르/을수록 : As One Situation Changes, Another Situation Changes

(모음+~르수록, 자음+~을수록)

엄마: 어머니 세상에! 우리 유진이 전 과목이 A+잖아?

딸: 네~네~네~. 엄마? 모두 A+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죠?

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죠?

엄마: 잘 **할수록** 겸손해야지. 벼는 **익을수록** 고개를 숙이는 거란다.

- 다음에 오는 두 문장에 '~르수록/을수록'을 넣어 한 문장으로 만드세요.

1. 많이 먹는다. 살이 찐다.

➔ 많이 **먹을수록** 살이 찐다.

2. 벼가 익는다. 고개를 숙인다.

➔

3. 환경이 오염이 심하다.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.

➔

4. 그 배우는 나이가 들었다. 더 멋있다.

➔

5. 변명을 많이 하다. 잘못은 확실해 진다.

➔

6. 수업 시간이 단축되다. 학생들은 좋아한다.

➔

7. 소리를 크게 지르다. 메아리가 크게 돌아온다.

➔

한국반	한글을 사랑하는 마음 지니기(한글학자 ‘주시경’)	초등 4-1 나 읽기
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

- 파란색 글씨, 새로 나온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쓰세요.



1876 년 12 월 22 일 황해도 봉산에서 태어난 주시경은 과거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하루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.

주시경이 열두 살이던 무렵이었어요. 서울에서 장사를 하는 큰아버지가 찾아왔어요. 병으로 자식을 모두 잃은 큰아버지는 조카 한 명을 데려가 아들로 키우려고 했어요.

부모님은 곰곰이 의논한 끝에 둘째 아들인 주시경을 큰집에 보내기로 했어요. 주시경은 가족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슬펐지만 부모님의 뜻에 따라 서울 큰아버지 댁으로 갔어요.

서울에 온 뒤 주시경은 큰 아버지 댁 근처에 사는 이회종 선생님에게 한문을 배웠어요.

열여덟 살이 된 주시경이 중국의 옛 시집인 ‘시경’을 알기 쉽게 풀이한 ‘시전’을 공부할 때의 일이에요.

“내가 한 구절을 읽을 테니 따라 읊으려무나. ‘별목정정 조명행행.’”

학생들은 멍하니 선생님을 따라 읊었어요.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. 주시경도 뜻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지요.

“별목정정, 나무 찍는 소리는 쨍쨍 울리고, 조명행행, 새들은 짹짹 울음을 우네. 이리 쉬운 시도 풀이를 못 하다니 공부를 게을리 하였구나!”.

선생님이 못마땅한 얼굴로 뜻을 가르쳐 주었어요. 주시경은 저도 모르게 힘이 빠졌어요.

‘저 뜻 모를 말이 겨우 나무 찍는 소리와 새 울음 소리였다니! 왜 알아듣기 힘든 한문으로 읽고, 우리말로 다시 풀이해야 할까? 처음부터 우리말로 하면 바로 알아들을 텐데.’

주시경은 그전에도 한문 글귀를 못 알아들은 적이 몇 번 있었어요. 그때마다 공부를 열심히 안 한 스스로를 탓했지요. 그런데 오늘은 도무지 잘못했다는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.

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동안 주시경은 골똘히 생각에 잠겼어요.

‘나무 찍는 소리 쨍쨍은 쨍이라 읽는 한자가 없어 정을 쓰고, 새 울음소리 짹짹도 짹이라 읽는 한자가 없어 새가 운다는 뜻의 한자 앵을 쓴 거야. ‘쨍쨍’과 ‘짹짹’이라고 쓰면 훨씬 알아듣기 쉽고 원래 소리에도 가까운데 말이야.’

주시경은 답답한 마음에 첩퍼덕 주저앉았어요. 그러고는 몇 해 전 배운 한글을 흙 바닥에 끼적였어요. 십 년을 넘게 배워도 아직 다 깨치지 못한 한문과 달리 한글은 며칠 만에 읽고 쓸 수 있었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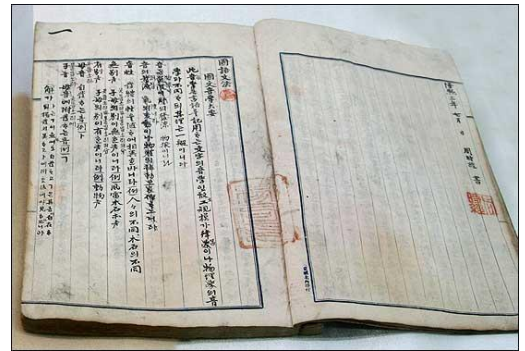
그날 이후 주시경은 점점 한글에 빠져들었어요.

1894년 열아홉 살이 된 주시경은 배재학당에 입학해 지리, 수학, 영어 등 여러 가지를 공부하며 한글 연구에 필요한 **지식을 다져 나갔어요**. 주시경은 **집안 형편이 어려워** 수업이 끝나면 **인쇄소**에서 일하며 생활에 필요한 돈을 마련해야 했지요. 집에 돌아오면 몹시 피곤했지만 주시경은 한글을 연구했어요.

주시경은 ‘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’라는 뜻을 가진 **‘훈민정음(訓民正音)’**을 ‘큰, 하나의 글’이라는 순수 한글 이름인 **‘한글’**로 바꿨어요. 세종대왕이 어려운 한자를 배우며 고생하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창제한 한글을 **널리** 사용하게 하는데 **앞장 섰어요**.

당시 우리나라에는 사람들이 **쉽게 볼 만한 우리말 문법책**이 없었어요. 많은 사람이 한문 만을 글로 여기고 우리글에는 **관심을 가지지** 않았기 때문이지요. 주시경은 사람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우리말 문법책을 만들기로 **마음 먹었어요**.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먼 길도 **마다하지 않고** 찾아갔어요. 빌려 봐야 하는 자료는 **일일이 베껴서** 모았지요.

1906년 주시경은 **‘대한 국어 문법’**이라는 책을 펴냈어요. 이 책에는 한글과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규칙적인 문법이 실려 있었어요. 그 후로 주시경은 사람들에게 한글을 연구하는 학자로 **널리 알려졌어요**. 여기저기에서 한글을 가르쳐 달라고 주시경에게 부탁을 해 왔어요. 이 **무렵**은 다른 나라들이 서로 우리나라를 차지하려고 다투던 시기였어요. 우리나라는 힘이 없었지요. 주시경은 이런 어려운 때 **일수록** 우리글이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며 한글을 가르쳐 달라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갔어요. 1910년 나라가 완전히 일본에게 넘어간 이후에도 주시경은 한글을 가르치며 늘 **우리 글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**이라는 것을 강조했어요.



“주 보따리 오신다!”

학교에 들어설 때마다 주시경을 알아보고 소리쳤어요. 주시경은 늘 **두루마기**를 차려입고 옆구리에 커다란 **보따리**를 들고 다녔어요. 그래서 ‘주 보따리’라는 별명이 붙었지요.

그 **보따리 안에는 학생들을 가르칠 책과 여러 자료**가 있었어요. 주시경은 우리글을 연구하는 일 **못지않게** 우리글을 가르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. 주시경은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 보따리를 들고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어요.

주시경은 한글 연구와 교육을 방해하고 탄압하는 일본을 피해 중국으로 **망명**하기로 하고 준비하던 중 건강이 악화되어 1914년 목숨을 거두었어요.

한글의 어제, 오늘 그리고 내일

- 아래는 한글이 만들어질 때부터 현재까지의 일어난 일입니다. 다음의 글을 시간의 순서에 맞게 차례대로 정리하세요,
 - 가. 1443 년 겨울, 한글이 발표되었다.
 - 나. 한글이 만들어지고, 3 년 후인 1446 년 한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사용법을 담은 ‘훈민정음’이 발표되었다.
 - 다.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한국 사람들은 중국의 한자를 글자로 사용했지만, 한국의 말은 중국의 한자와는 잘 맞지 않았다.
 - 라. 말과 다른 글자를 배우기 힘들었던 백성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던 세종대왕은 몸이 약해져 여러가지 병을 얻은 후에도 마지막 남은 힘을 한글을 만드는데 쏟았다.
 - 마. 한글은 만들어지고 나서도 3 년 동안 실제 사용이 가능한 지 여부를 실험해 보고 불편함이 없는지 조사하는 과정을 거쳤다.
 - 바. 세계의 언어학자들은 한글의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글자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.
 - 사. 주시경 선생은 훈민정음에 한글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한글 연구와 교육에 힘써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만 사용하는 글이라고 무시당하던 한글을 널리 보급했다.
 - 아. 이제 한글은 말은 있으나 글자가 없는 소수민족의 문자로 사용되기도 하고 더 많은 민족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.
 - 자. 달라진 한국의 위상과 한류의 영향으로 많은 세계인들이 한국어 배우기에 열정을 쏟고 있다.
 - 차. 우리의 말과 글의 사용이 공식적으로 금지됐던 일제강점기에도 조선어 학회를 비롯한 학자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키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.